

## 'INKE Spring Kuala Lumpur, 2007' 및 '동남아 유통기업 초청 벤처기업 상담회' 성료



협회는 5.5억 ASEAN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모색과 시장개척을 위해 3월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INKE Spring Kuala Lumpur, 2007' (3월 29일~31일)과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에서 INKE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남아 유통기업 초청 벤처기업 상담회' (3월 26일~29일)를 개최했다



한인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의 정기 비즈니스컨퍼런스인 이번 쿠알라룸푸르 인케스프링에는 박봉철 의장을 비롯한 12개 인케 해외 지부에서 16명, 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국내임원사 17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이현재 청장 일행도 함께 하였다.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는 INKE 회원 및 현지 하이테크 관련 기관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특히 현지 과기부 장관이 INKE·KOVA 일행에 대해 정성을 다해 대접할 것을 지시, 차관급의 고위 관료 및 국영기업체의 수장도 상당수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 등 인근 4개지부 의장의 발표로 이루어진 동남아진출전략포럼, 말레이시아 정보통신위원회(MCMC)의 말레이시아 통신5개년 계획 발표, 말레이시아 통상진흥청(MIDA)로부터의 투자설명회 및 말레이시아의 벤처인증과 유사한 MSC(Multimedia Super Corridor)를 관할하는 MDeC과의 네트워킹 등 말레이시아 및 인근 ASEAN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또한, KOVA 임원사 및 회원사 중 5개사를 선발하여 진행된 PT 간담회를 통하여 INKE 네트워크에 국내의 우수 기업을 소개하고,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현재 스프링 이후 참석자간에 여러 건의 비즈니스 제안들

이 진행되는 중이다.

말레이시아 국영 R&D 연구소인 MIMOS의 실무연구진을 대상으로 한글과컴퓨터, 니트젠, 유니텍, 엑스톤, 에이스텔 등의 기업이 자사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PT상담회도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스프링을 통해 MDeC과 KOVA간에는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MOU가 체결된 한편 MDeC의 회원사인 Beskom사와 KOVA 임원사인 니트젠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스프링 기간에 앞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동남아 유통기업 초청 벤처기업 상담회'에는 유진로봇, 와우테크 등 국내 우수중소벤처기업 12개사가 참가하여 현지의 Siemens/Best Denki/Ban Leong과 같은 대형유통업체 및 주요바이어 60 여개 사를 대상으로 현지 진출을 위한 심도깊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다.

유호하이테크와 선명전자 등 DVR 개발업체에 대한 현지의 적극적인 문의와 상담요청이 쇄도하였으며, 현지 대형전자유통업체들은 국내 참가사 중 유진로봇의 청소로봇과 와우테크의 펜마우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현지공급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동남아 유통상담회는 인케 싱가포르지부 김철수 의장, 쿠알라룸푸르지부 홍병철 의장 등 INKE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국내 참가사들은 같은 시기에 연계 개최된 스프링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여, INKE 해외지부 참석자와의 교류 기회도 가졌다.

## 열기 가득했던 동남아의 일주일

방기홍 / 엑스톤 대표



사실 나는 이번 인케스프링 및 동남아유통상담회를 앞두고 일주일간의 긴 출장에 대한 부담과 상담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참석여부를 두고 많이 망설였다. 하지만 그간 들어왔던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참석을 결심하게 됐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지금은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유통상담회의 결과가 만족스러웠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엑스톤의 사업분야인 WiBro 시스템에 대해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2업체, 말레이시아에서 10여 업체와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사들과 고속 무선이동통신 사업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보자는 열기 가득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방문하기 1주일 전에 WiBro 4개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여서 특히나 진지한 미팅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상담회와 연계 진행된 INKE Spring에 참석하신 세계 각지 의장님들과의 만남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것을 얻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말레이시아에서 MiMOS라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ETRI같은 곳에서의 참여사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참석 연구원들의 경청하는 태도를 보며 가능성을 더더욱 느낄 수 있었다. 상대방 회사를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한 면을 서로가 해결해서 나라는 다르지만 함께 우리가 되는 것이 글로벌 성공 비즈니스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번 행사진행과 참가사 들을 챙기느라 고생하셨던 KOVA분들에 감사드리며, 새벽에도 중남미와 전화회의를 하고 그 무거운 데모시스템을 설치하며 상담을 진행하셨던 룸메이트 에이스텔 이강현 사장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선물 받았다. 오늘도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와 전화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회사를 도울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INKE의 힘! 대한민국 벤처의 힘!

서호경 / 인케 젯다지부 의장



바쁜 사업일정을 쪼개어 INKE의 일원이라는 반 의무감(?)으로 참석한 이번 INKE Spring은, 내게 한국 벤처사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한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INKE의 일원으로

서의 뿌듯함을 만끽하는 행복한 여정이었다. 참석자 전원이 한 목소리로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알찬 행사였다'고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벤처협회와 INKE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첫째 INKE의 활동범위가 국가 차원의 교류로 확대되고, 둘째 현지에 'IT강국 Korea'의 이미지를 선명히 각인하였으며, 셋째 한국과 각 지역의 2자간 단순교역을 뛰어넘어 제3국간의 교역에도 INKE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첫째 날, 동남아 시장현황 브리핑과 동남아 진출 전략, 협회회원의 전략상품 상담회 그리고 말레이시아 해외투자유치단(MIDA)의 투자설명회. 이어 둘째 날, 말레이시아 Multimedia 기술개발공사(MDeC)와 정보통신연구소(MIMOS) 방문 및 상호 Presentation. 신형정수도 시찰 등 그야말로 알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었다. 또한 그들의 '한국을 배우자, 한국과 협력하자'는 의지와 우리 Delegation에 대한 정갈 성의 있는 환대는 인케의 위상을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MDeC과 벤처협회 간 장관급의 협력 MOU 체결, 니트젠과 현지 파트너간의 합작법인 설립계약 및 각국 INKE 의장들 간의 사업 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번 인케스프링의 결과물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감동의 순간들을 한정된 지면에 모두 그려낼 수 없듯이 정말 아쉽다. 10년 전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역할을 하였던 우리의 토종벤처기업들이 이제 세계를 누빌 날이 숨 가쁘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일구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INKE 지부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행사를 위하여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